

고령자 저임금 비중 변화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임금) 중위수준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고령(55~79세) 저임금근로자는 2011년 3월 고령 임금근로자의 50.9%로 고령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룸.
 - 2011년 3월 시간당 중위임금은 8,630원이며, 저임금근로자는 2011년 1~3월 평균 시간당 약 5,735원 이하의 임금을 받음.

〈표 1〉 연령범주별 세전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소득 지위별 분포

(단위 : %)

	15~54세				55~79세			
	저임금	초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2002. 8	20.6	7.1	52.3	27.1	49.0	27.5	35.8	15.2
2003. 8	21.3	8.6	49.1	29.6	50.9	31.9	33.9	15.2
2004. 8	23.3	9.7	47.6	29.1	53.0	34.0	31.5	15.5
2005. 8	23.4	9.5	46.0	30.6	54.0	33.3	30.4	15.7
2006. 8	22.4	9.8	49.8	27.8	54.0	34.5	31.6	14.5
2007. 3	19.8	8.2	50.0	30.2	50.3	32.3	33.7	15.9
2007. 8	23.7	9.7	46.6	29.7	55.3	33.5	29.0	15.8
2008. 3	23.0	8.9	46.0	31.0	54.7	33.3	29.3	16.0
2008. 8	22.1	8.2	50.1	27.8	54.9	31.2	29.7	15.4
2009. 3	21.7	7.7	49.5	28.8	53.5	32.1	31.9	14.6
2009. 8	22.0	9.4	48.5	29.5	53.6	31.9	31.5	14.9
2010. 3	22.3	9.5	47.6	30.1	54.8	35.1	29.0	16.2
2010. 8	21.9	9.1	48.7	29.3	53.7	33.5	31.3	15.0
2011. 3	19.7	8.1	49.6	30.7	50.9	32.3	32.8	16.3

- 주 : 1) 2007년 이후 3월과 8월 두 번의 조사로 변경.
- 2) 중위임금의 1/2 미만은 초저임금, 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저임금, 중위임금의 3/2 초과는 고임금으로 정의.
- 3) 초저임금은 저임금에 포함되는 개념임.
- 4)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3월, 8월.

- 1) 이때 사용하는 임금변수는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의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였고, 노동시간 변수는 평소 1주 근로시간을 이용해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평소 1주 근로시간*365/84))
- 2) OECD 보고서에 인용되는 저임금과 상대 빈곤, 상대 고소득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중위임금의 1/2 미만을 받는 초저임금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그리고 중위임금의 3/2 초과를 받는 고임금으로 나누었다.

- 시간당 임금은 매주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임.
 - 15~54세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1년 3월 저임금고용은 19.7%를 차지함.
 - 55~79세 저임금고용의 비중은 2002년 이후 다소 기복을 보이지만 대체로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5~54세 대비 55~79세의 2011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74.4%이고, 세부연령으로 55~64세는 86.9%인 반면, 65~79세는 38.8%로 나타남³⁾.
- 55~79세의 경우 2011년 3월 초저임금고용은 임금근로자의 32.3%에 해당하고, 15~54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8.1%에 해당함.
 - 초저임금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시간당 4,315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 이는 최저임금(2011년 4,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55~79세) 임금근로자는 1/3에 이룸.
 - 2011년 3월 기준 55~64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41.6%가 저임금고용이고, 초저임금고용은 22.6%로 나타남.
 - 2011년 3월 남성의 경우, 저임금고용은 29.0%이고, 여성은 60.9%로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함.
 - 2011년 3월 초저임금고용도 여성이 남성의 두 배가량 많아 여성 55~64세 임금근로자의 31.5%를 차지함.
 - 2011년 3월 기준 65~79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77.2%가 저임금고용이고, 초저임금고용은 59.6%임.
 - 65~79세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임금고용 상태이며, 절반이 넘는 고령자가 초저임금 상태임.
 - 2011년 3월과 2007년 3월을 비교할 경우, 저임금고용은 7.2%p 상승하였고, 초저임금고용은 5.2%p 상승하였음.
 - 2002년 이후 저임금고용과 초저임금고용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초저임금은 2010년 3월 이후 크게 증가함.
 - 한편, 65~79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90% 가량이 저임금고용임. **KLI**

3) 월평균 임금은 15~54세 210.2만 원, 55~79세 156.2만 원, 55~64세 182.5만 원, 65~79세 81.5만 원임.

〈표 2〉 55~64세 세전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소득 지위별 분포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2002. 8	44.0	23.2	29.3	15.6	68.7	35.8
2003. 8	44.9	25.9	29.7	16.8	69.9	40.9
2004. 8	46.4	27.3	32.4	18.3	69.0	42.0
2005. 8	48.0	26.6	34.1	18.6	71.0	40.0
2006. 8	47.5	28.9	33.7	21.3	70.7	41.8
2007. 3	43.4	25.6	30.2	18.8	66.0	37.3
2007. 8	48.5	26.1	32.9	17.7	74.7	40.4
2008. 3	47.1	25.8	32.5	18.6	71.6	37.9
2008. 8	47.0	23.7	32.2	15.9	70.9	36.2
2009. 3	45.6	24.1	31.0	17.2	69.2	35.3
2009. 8	44.4	23.9	30.4	17.7	65.9	33.3
2010. 3	45.8	25.3	30.4	17.7	69.1	36.7
2010. 8	44.6	23.9	28.1	15.9	69.3	35.9
2011. 3	41.6	22.6	29.0	16.8	60.9	31.5

주 · 자료 : <표 1>과 동일.

〈표 3〉 65~79세 세전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소득 지위별 분포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저임금	초저임금
2002. 8	68.7	44.8	55.9	32.1	84.2	60.2
2003. 8	74.8	55.9	64.4	45.6	85.9	66.9
2004. 8	76.8	58.0	69.1	49.5	85.8	68.0
2005. 8	73.6	55.2	64.4	44.9	85.6	68.7
2006. 8	72.6	50.8	65.3	43.8	82.3	60.0
2007. 3	70.0	51.4	62.2	43.4	81.2	62.9
2007. 8	74.0	53.7	66.4	46.9	84.0	62.7
2008. 3	77.8	55.9	70.6	48.2	87.5	66.3
2008. 8	78.0	53.1	70.6	48.0	87.4	59.4
2009. 3	75.1	54.1	66.3	46.8	86.2	63.4
2009. 8	76.7	51.9	67.9	45.7	86.1	58.6
2010. 3	79.3	61.6	70.0	53.5	89.9	70.8
2010. 8	77.8	59.0	68.5	51.9	88.1	66.7
2011. 3	77.2	59.6	67.2	50.3	89.1	70.7

주 · 자료 : <표 1>과 동일.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